

군산시, 해상풍력 사업 탄력

공모 선정... 한국형 뉴딜 일환, 2년간 국비 35억원 지원 적합 입지 풍황자원 · 해양환경 · 지역 커뮤니티 등 조사

군산시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의 '공공주도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르면 '공공주도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사업'은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2022년까지 2년간 국비 35억원을 들여 산업부·해수부·환경부 공동의 해상풍력 적합 입지의 풍황자원과 해양환경, 지역 커뮤니티 등을 조사하는 사업이다.

해당 공모 사업에 선정된 시는 군산 해역 내 풍황계측기 2~3기를 설치해 어업 영항이 적으면서 해상풍력 사업의 적합한 부지를 발굴하게 된다. 시는 그간 어민들과의 상생방안을

수립한 후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일관된 방침이며, 해상풍력과 연계한 수산업 활성화 사업 발굴, 어촌계 등 수산업 종사자와의 지속적인 소통 및 재생에너지 사업의 시민 참여 플랫폼인 전담기관 설립 등 지역 내 기반을 조성하는데 주력해왔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의 전폭적인 지지와 관계부처 협조를 얻어 올해 처음 시행된 공공주도의 해상풍력 공모사업에 선정된 군산시는 내년 착공을 앞둔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과 함께 대규모 해상 풍력 사업까지 순항을 예고 하면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또 한번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번 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추진 수월 여건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사업은 군산시의 배후 항만, 조선 기자재 기업 등 해상풍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지역 경제 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지역의 재생 에너지 사업을 통한 그린 뉴딜 실현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군산시는 본격적인 해상풍력 사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2030년까지 세계 5대 해상풍력 국가로의 성장 등 정부 해상풍력 발전에 적극 기여하고 명실상부한 재생에너지 중심 도시로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사업과 연계해 향후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군산=한경봉 기자



2019년 산학협력 R&D 자유과제 '젠트리피케이션과 관광지화 진단을 위한 통합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연구 중간 결과 포럼이 최근 군산대학교 산학협력관에서 개최됐다.

지방 중소도시 젠트리피케이션 진단 연구 포럼

군산대 지역재생연구소서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 공간정보연구소가 지원하고 군산대학교 지역재생연구소(총괄책임자 박성신 교수)가 수행하는 2019년 산학협력 R&D 자유과제 '젠트리피케이션과 관광지화 진단을 위한 통합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연구 중간 결과 포럼이 최근 군산대학교 산학협력관에서 개최됐다.

포럼은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연구진과 패널간 온·오프라인 병행 시스템으로 진행됐다.

각종 사업이 진행 중인 지방 중소도시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 대도시를 대상으로 한 기존 상업젠트리피케이션과 차별화된 관광젠트리피케이션 상황의 전개 양상 및 이를 진단하기 위한 지표 설정 체계 및 설문조사를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에 대하여 박성신 교수(군산대학교 지역재생연구소장)는 지방중소도시의 현황과 관광젠트리피케이션의 개념을 정의하고, 진단을 위한 지표 설정 체계 및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한 정성지표 구축과정을 발표했다. 공대연구기관의 김영옥 교수(세종대학교)는 스페이스인텍스(SPACE SYNTAX)를 활용해 대상지의 공간 구조가 관광젠트리피케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고, 김승범 소장(브이더블유엔)은 휴대편 빅데이터 기

반으로 추출한 유동인구 및 상권 변화 등 정량지표를 제시했다.

패널로 참여한 이진희 박사(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는 "지방중소도시에 대한 연구로 구체적인 사항들을 검토하고 진행시킨 것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다른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로 생각한다"고 평했다.

심경미 박사(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선제 대응도 중요하나, 발생 중간의 단계라면 그 이후의 대응을 함께 고려해 도시재생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현태 박사(공간정보연구원 선임연구원)는 남은 기간 동안 연구를 보다 정교하게 발전시켜 지역의 상생이 가능한 논의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군산시의회 배영원 의원은 "관광 의존도가 높은 군산에 대응하기 위해 이러한 연구가 정책적으로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갖기를 기대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번 포럼을 통해서 지방 중소도시가 각종 재생사업으로 겪는 문제는 관광젠트리피케이션임을 확인했고, 유동인구 현황 인구구성에 따른 활력도, 생활지원시설 및 관광지원시설의 증감, 주중과 주말의 생활양식 변화 등을 주요 진단 지표로 제시하며 연구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익산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 본격

간담회 갖고 건립부지 등 논의

익산시가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돌봄, 교육, 자립을 지원하는 평생교육센터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지난 25일과 26일 이틀 간 지역 주민들과 국회의원, 관련 기관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첫날 주민간담회에는 평생교육센터 건립 예정지인 삼성동 4개 기관단체 대표와 인근지역 통장, 시의원 관계공무원 등 15명이 참석했으며 둘째날 간담회에는 정현을 시장을 비롯해 한병도 국회의원, 5개 발달장애인 유관단체(꿈바꾸협동조합, 전북특수교육·복지지원연합, (사)한국장애인부모회 익

산시지부, 전북장애인참교육협회, 한국장애인사랑협회 전북지부 익산(지역) 대표, 관계공무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주민과 기관단체 대표들에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사업 개요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건립부지와 센터명칭 선정, 국가예산 확보계획 등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관단체 대표는 "같은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은 꼭 필요한 것 같다"며 "발달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소통하며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사업이 무리 없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지난 7월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던 한병도 국회의원은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을 책임져야 할 시기로 익산시가 한 발 앞서 나가게 되어 기쁘다"며 "익산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 확보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현을 시장은 "지속적인 돌봄과 교육이 필요한 성인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센터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시민의 날 기념식

올해로 58회를 맞이하는 군산시 시민의 날 기념식이 지난 25일 군산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에 따라 별도의 초청인사 없이 참석 인원을 최소화해 군산시의장, 국회의원, 교육장 및 시상자 등 50명 이내로 실시했다.

행사는 식전·후 공연을 생략하고 지금까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추진했던 활동 등을 영상에 담았다.



지난 25일 군산시청 대강당에서 제 58회 시민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또한, 기념식에는 시 발전과 명예를 높이는 데 헌신 공헌한 분에 대한 군산시민의 장(문화예술체육장 임귀성,

애향봉사장 내음일 산업장 임문정, 노동장 고진곤, 교육장 김정현)과 시민회합과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모범 시민을 음반공표 1명씩 27명을 선발해 시상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심신의 피로가 쌓여 힘든 시기이지만 시민들의 지혜와 풍부한 경험으로 이 힘든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라고 말하며 "제58회 군산시민의 날을 계기로 우리시민들이 더욱 똘똘 뭉쳐 군산발전을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익산시, '2차 재난지원금 아동돌봄비' 조기 지급

익산시는 코로나19로 아동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정부 2차 재난지원금 아동돌봄비'를 추석 전까지 지급한다.

시는 아동돌봄비 2만2천(중학생 15만 원)을 오는 29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만 7세 미만 영유아들에게 지급됐던 1차 아동돌봄비와 달리 중학생까지 확대 지원되며 별도의 신청 없이 돌봄비가 계좌

로 지급된다.

미취학 아동에 대한 아동돌봄비 지급대상은 이달 기준 아동수당 수급자(2014년 1월부터 2020년 9월생) 1만 1,400여명이며 예산은 22억원 규모로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지원된다.

초·중학생과 중학생은 교육청에서 지급하며 급식비, 현장학습비 등을 납부하는 스쿨뱅킹 계좌를 활용해 지급될 계획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